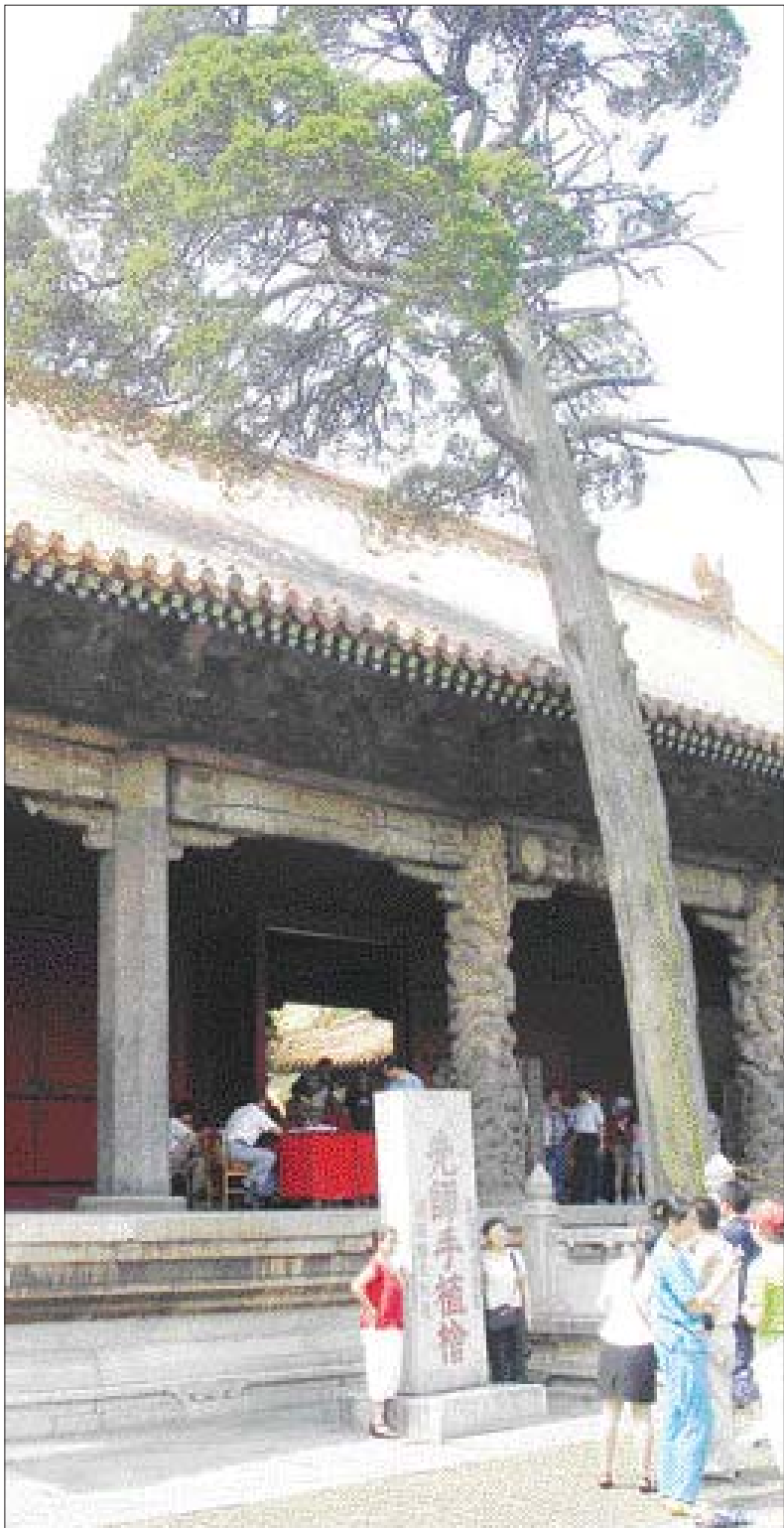


땀길로 가는 중국 산둥성 ㉔ 공자의 고향 곡부(曲阜)

공자여, 나와 함께 주유천하 해봅세~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둥(山東)반도다. 산둥성은 소주나 항주, 상해, 북경 등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곳이다. 하지만 문명의 발상인 황하(黃河)강이 가로지르고, 공자(孔子)가 태어난 곡부(曲阜), 오악(五岳) 중 으뜸으로 꼽히는 태산(泰山) 등이 있는 산둥성은 불가리에서 있어 다른 지역에 빠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을 오가는 페리가 많아 저렴한 가격에 중국을 여행하려는 이들에게는 권할 만 하다.

본보는 최근 평택-일조를 주 3회 운항하는 C&페리호 관광을 떠난 코오롱세계일주 광주점 (주)렛츠고여행사(사장 박제우)의 초청을 받아 5박6일 동안 일조, 곡부, 제남, 태산 등 산둥성 일대를 다녀왔다. 이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곡부(공묘·공부·공림)와 태산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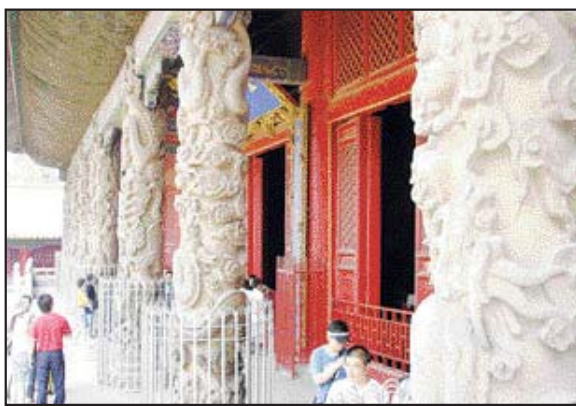


공자가 직접 심은 나무.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필수 코스다.

유교(儒敎)는 수천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라들을 지배해온 사상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접어드는 동안 동아시아가 약진을 거듭하자 이젠 거꾸로 세계가 유교에 주목하고 있다. 유교 문화권 나라의 질·양적 성장이 유교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교의 땀길인 곡부를 찾는 발길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자(BC 551~BC 479)의 고향 곡부는 산둥성의 성도(城都) 제남(濟南)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다. '곡부=공자의 도시'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 도시가 공자 마케팅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유교 땀길 따라 '과거로의 여행'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공묘(孔廟)는 곡부 시내 한복판에 있다.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확장해 확장을 거듭해 문이 9개나 되고 건물수는 360여개이며 총 둘레는 5.5km에 달한다. 북경의 자금성, 승덕의 피서산장과



<대성전 용기둥>



<맹묘맹부>

함께 중국의 3대 건축군에 꼽히며, 공묘의 중심에 있는 대성전(大聖殿)은 자금성의 태화전, 태산의 대묘현황전과 함께 중국의 3대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공묘의 첫 번째 문에는 맹자(孟子)가 공자의 사상을 찬양하면서 표현한 '금성옥진(金聲玉振)'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공묘 내 곳곳에는 약 2천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대부분의 비석들은 깨져서 보수한 자국이 있는데 유교의 파란만장함을 보여준다. 유교가 역사적으로 크게 탄압을 받은 것은 진시황제의 분서갱유(焚書坑儒), 1919년 5·4 학생운동, 1966년 문화대혁명 등 세번. 특히 20세기 두 번의 혁명 세력들

▲주유천하(周遊天下)=춘추전국시대인 B.C 496년 공자는 제자인 자로, 자공, 안회 등과 함께 천하 유력(游歷)의 길을 떠나며 도덕정치를 설교한다. 비록 덕있는 제후를 만나지 못했지만 13년 동안의 주유천하는 후세 제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 유교가 남존여비 등의 봉건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묘를 훼손했다. 공자의 책을 보관한 도서관으로 활용됐던 규문각(奎文閣)을 지나면 건륭(乾隆) 등 공묘를 방문했던 황제들이 세운 13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유교의 고단한 역사 노벽(魯壁)

이후에 나오는 곳은 행단(杏壇). 공자가 은행나무가 많은 단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 데서 유래했다. 그 뒷편에는 '선사수식회(先師手植楡)'라고 쓰인 비석과 함께 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다. 공자가 직접 심은 나무여서 인지 관광객들의 포도 포인드다. 청나라 강희제(康熙帝) 때 불에 탔으나 뿌리가 살아나 지금의 크기로 컸다고 하지만 '민거나 말거나'다. 깨진 비석 외에 유교의 고단한 역사를 한 몸 보여 주는 곳이 노벽(魯壁)이다. 노벽은 분서갱유 때 진시황 제로부터 공자의 책을 보호하기 위해 책을 넣어 인공적으로 만든 벽이다. 바로 곁에는 공자가 어린 시절 물을 길러 마셨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다. 공묘의 중심 대성전은 자금성의 태화전과 크기와 높이가 정확히 같다. 공자의 위상이 황제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공묘, 공림(孔林)과 함께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부(孔府)는 공자 후손들의 집이자 사무를 보던 곳으로 보면 된다. 봉건귀족의 장원이자 관아인 셈이다. 7만5천㎡ 크기에 아홉채의 건물이 있다.

공부가주 한잔에 피로 풀고

공묘·공부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림은 공자와 그 후손들의 공동묘지다. 모두 10만여기의 무덤이 산재해 있다. 현재 중국의 장례문화는 화장이지만 지금도 공자의 후손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남성들만 입묘할 수 있다. 공자의 제사에 주로 쓰였다는 공부가주(孔府家酒)는 우리나라 주당에게도 인기가 있다. 공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추성(鄒縣)의 맹묘(孟廟)·맹부(孟府)는 맹자의 사당과 맹자 후손들의 자택이다. 공자를 지성(至聖)이라 부르면서 유래해 아성묘(亞聖廟)라고도 한다. 공묘·공부와 구조가 거의 같지만 규모에서는 차이가 크다. 공묘·공부에 비해 소박한 대신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 많아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더 한다. 특히 관광객 수가 적어 고즈넉한 고가(古家) 산책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도움>렛츠고여행사(062-373-3322)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라도 맛 기행

광주 동명동 냉면 전문점 '가원'



얼음그릇속 '새콤달콤 별미'

쫄깃쫄깃한 면발에 육수도 일품

냉면(冷麵)은 대표적인 여름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원래는 겨울철 제철음식으로 따뜻한 방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한다. 냉면은 쫄, 메밀등 다양한 종류의 가는 면과, 삶은 오이등의 생야채, 배 한 조각, 그리고 고기와 삶은 달걀로 이루어진 음식이다. 보통 물냉면과 비빔냉면으로 분류되는데 물냉면은 보통 차가운 육수(보통 소고기 육수)에 담겨져 나오며, 비빔냉면은 고추장과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빨강고추장 매운 양념에 비벼먹는다. 물냉면은 육수 제조법이나, 들어가는 고기나 야채의 종류에 따라 그 종류가 많다. 그 외 생선회와 고추장 양념으로 이루어진 열냉면, 물냉면에 열무로 추가한 열무냉면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냉면집은 많지만 무더운 여름 눈과 온몸이 시원해지는 냉면집이 있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18-12번지 자산사거리 부근 '가원'이 그곳이다. 이집의 냉면은 독특한 '맛'과 '맛'을 자랑한다. 냉면의 생면인 육수는 한우 사골뼈와 신선한 닭, 무우, 양파, 대파, 생강등을 넣고 푹 고아 만들어 낸다. 고구마 전분을 사용해 뽑은 면은 그냥 삶는 것이 아

니라 10초정도 얼음에 담궈다 삶는다. 이렇게 하면 면발이 쫄깃하고 천천히 먹어도 면발이 붙지 않는다. 냉면(32)사장의 귀뜸이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는 광주에서 처음 선보인 얼음그릇에 담겨져 나와 먹는 이들에게 시원함과 독특한 맛을 제공한다. 얼음그릇은 정수된 물을 틀에 넣고 12시간 얼려서 만들어 낸다. 투명하게 얼은 얼음그릇에 담긴 냉면은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고 가슴까지 얼려버릴 듯한 국물 맛은 새콤달콤하게 더위를 저만 치 달아내 버린다. 1인분 6천원. 문의 062-225-9233.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 ★ 6개 만점 >

찾아가는 길
본문
주소: 광주 동구 동명동 18-12번지
지도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가라!!
헤은이
7월 19~20일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 목장, 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서구 서현동 주거지역 800평 1300평 575만 원(세제 물세 포함)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420평 80만 원(건축허가)
▶광산구 장곡동 생선녹지 650평 80만 원(평등권인원)
▶북구 용현동 자연녹지 1500평 100만 원(분할)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400평 80만 원(분할)
▶서구 백전동 자연녹지 420평 130만 원(분할)
▶광산구 장곡동 자연녹지 760평 130만 원(분할)
▶광산구 신정동 생선녹지 980평 80만 원(분할)
▶광산구 후산동 생선녹지 250평 180만 원(분할)
▶남구 일곡동 주거지역 820평 50만 원(분할)
▶서구 용현동 임야 4200평 510만 원(분할)
▶회현동 출생면적 200평 425만 원(분할)
▶남구 일곡동 대지 330평 559만 원(분할)
▶북구 왕월동 대지 200평 75만 원(분할)
▶광산구 신정동 자연녹지 720평 570만 원(분할)
▶남구 용현동 주거지역 820평 50만 원(분할)
▶서구 용현동 전 2100평 530만 원(분할)
▶남구 일곡동 전 2500평 대지 포함 주거지역 2100평 545만 원(분할)
▶서구 용현동 임야 3천평, 7천평 분할가 57만 원(분할)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현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 72평, 연건평 202평인 3층 코너 건물에 3억 8천만 원이다.
보종금 7천만 원, 월 280만 원이 나온다.
2004년 10월 완공이며, 임대 수익률 11~13% 예상된다.
임대 수익률로 적합하다.
세금문제로 인한 금액을 실 주택 가격은 4억 5천만 원
전대후문 중심상권 상가주택
대지 100평, 연건평 280평인 4층 건물에 11억이다.
총 39억 5천만 원, 보종금 3천만 원, 월 530만 원이 나온다.
4층 주민거주. 용지 5억까지 가능하고, 1층 보종금/월세도 상향조정 가능하다.
예상 연수익률은 9~10%이다.
(꼭 좋은 자리)에 장사하고 싶으나, 권리가 부담스러운 1층 실수요자도 적합한 자리이다.
전대후문 노래방 70평
보종금 6천만 원, 월 200만 원, 시설 권리가 1억 2천만 원 노래방이 매물로 나왔다.
월 117만, 소방안전점검 나왔고, 도무지가 필요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최고 중심상권에 위치하며, 월 수익이 9백만 원 이상인 임대 상가이다.
전대후문 대로변 1층 50평 상가
보종금 1억, 월 7백만 원, 시설 권리가 2억 5천만 원의 상가점포가 매물로 나왔다.
광주대학 상권 중 최고로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만 10만이다.
점포 및 공간 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안경점, 뷰티샵, 이대점 등 수많은 예비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리브콜"을 받는 곳
북구 용현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 상가
2층 학원 80평 대지가 2억 1천 5백만 원(용지 6천 5백만 원, 시설 집기 포함)
북구 용현동 전대공대 건너편 맨션
대지 292평, 연건평 441평인 5층 25평형 19세대 맨션아파트가 11억 8천 8백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원룸 및 고시텔로 용도변경하면 고수익이 예상된다.
상가 임대, 매수, 매매,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公認仲介士事務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는으려는 최소한 2개월전에 연락주시요.
입찰일 포렌라이프 정보개발원 상가부의 운영
항상 도움이 감사드립니다.
mobile 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계약중개사 사무소)